

신체의 수사학과 남성성의 심미화

— 정비석의 일제말기 소설을 중심으로 —

한 민 주*

- I. 서론: 신체의 부분, 부분의 권력
- II. 시각의 정치학과 남성성의 심미화 양상
 - 1. 성적 에너지의 전달통로와 고결함의 수사
: 「금단의 유역」
 - 2. '균중심리'의 전달통로와 '정복'의 수사: 「삼대」
 - 3. '정열'의 전달통로와 '희생정신'의 수사
: 「청춘의 윤리」
- III. 결론: 모든 여성은 파시스트를 숭배한다?

* 서강대 국문과 강사

국문초록

본고의 연구 목적은 신체의 수사를 통해 재현되는 남성성의 지배 양식을 살피므로써, 그 가운데 구성되는 섹슈얼리티의 정치적 무의식을 밝히는 데 있다. 사생활의 가장 내밀한 영역인 성생활에까지 깊숙이 침투하려는 전체주의와 집단성을 강조하는 파시즘 이데올로기 아래에서는 통제하기 어려운 비합리적 열정과 감정, 욕망의 통로나 매체가 되는 몸을 위협적인 것으로 보게 된다. 이렇게 위협한 몸과 성을 규제된 신체와 성으로 변화시키는 양상을 살피는 것은 당시의 문화현상뿐만 아니라 이데올로기의 작용을 살피는 작업도 될 수 있다.

파시즘 이데올로기와 젠더, 섹슈얼리티는 긴밀한 관련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본고는 일제말기 정비석의 소설들을 대상으로 하여, 신체의 한 부분에 대한 강조 의미를 파악해보고자 한다. 대상 텍스트는 「금단의 유역」(1939), 「삼대」(1940), 「청춘의 윤리」(1942)로 삼고 있다. 이들 대상 텍스트를 통해 신체의 부분으로 등장하는 '눈'의 시각성과 남성성의 재현 양상을 밝히며 대상화된 여성들에게 남성의 시선이 받아들여지는 방식을 살핀다. 이때 파시즘 이데올로기가 형식으로 사용하는 성적인 방식이 갖는 함의를 규명해 낼 수 있으리라 판단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위해 본고에서는 부분으로서의 신체에 집중해 본다. 부분 속의 신체는 항상 파편화된 신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파편화의 사회적이고 심리적인 조건은 신체 분할하기의 실천 속에서 코드화 된다. 집합적으로 구성된 가운데 부분들로 존재하는 신체는 개별화된 기관의 다양성에 의해 구성된다. 신체의 개별적 부분들에 내어서, 그리고 그 위에 각인되어 있는 문화적 의미들은 매우 다르게 다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시각은 철저히 관계 지향적이다. 그것은 대상화되는 타자에 관한 지식애와 권력, 욕망의 생산을 통해 리비도의 투자와 흐름을 보여 줄 수 있는 신체의 일부분이다. 따라서 논의의 전개는 시각의 정치학을 형성하는 매개물인 '눈'이라는 신체의 일부분이 소설 텍스트 상에서 어떠한 비유를 통해 의미 작용을 하게 되는가를 살피는 방향으로 진행해 나아간다.

핵심어 : 신체, 파시즘, 남성성, 섹슈얼리티, 눈, 시각

I. 서론: 신체의 부분, 부분의 권력

본고의 연구 목적은 신체의 수사를 통해 재현되는 남성성의 지배 양식을 살핌으로써, 그 가운데 구성되는 섹슈얼리티의 정치적 무의식을 밝히는 데 있다. 사생활의 가장 내밀한 영역인 성생활에까지 깊숙이 침투하려는 전체주의와 집단성을 강조하는 파시즘 이데올로기 아래에서는 통제하기 어려운 비합리적 열정과 감정, 욕망의 통로나 매체가 되는 몸을 위협적인 것으로 받아들여 왔다. 따라서 이렇게 위험한 몸과 성을 규제된 신체와 성으로 변화시키는 양상을 살피는 것은 당시의 문화현상뿐만 아니라 이데올로기의 작용을 살피는 작업도 될 수 있다.

최근의 많은 텍스트에서 몸¹⁾은 메시지, 텍스트 등이 각인되는 글쓰기 표면으로 형상화되었다. “텍스트에는 이미지, 자국, 기호, 또는 비유로서의 몸이 인물의 지각 속에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욕망과 연계되어 있는 몸은 기의의 한 자리로 뿐만 아니라 기표 자체, 서사 플롯과 의미의 주요 대항자가 된다.”²⁾ 이처럼 욕망하는 것 자체와 성을 담론화 하는 방식 안에도 권력이 작동하고 있다. 푸코에게 욕망이란 권력과 지식에 의해서 유발되는 것이다. “근대사회는 흔히 성적으로 억압적인 특성을 띤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섹슈얼리티는 당대 담론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생산되고 검토”³⁾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오랜 역사적 전통에서 인간 신체는 다양한 방식으로 젠더의 정치학을 각인하거나 표시하는 자리로서 기능해왔다. 여성과 남성의 생물학적 차이는 사회적으로 부여된 성 정체성의 재구성을 통해 정치적으로 활용되어 왔다. 그 때문에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와 젠더 정

1) 일반적으로 ‘몸’은 규율화되기 이전의 원자료로서의 육체를 가리킨다. 이것이 사회, 문화적 맥락에서 의미화, 규율화될 때는 ‘신체’로 명명되기 시작한다.

2) 피터 브룩스/이봉지·한애경 역, 『육체와 예술』(문학과 지성사, 2000), pp.22~25.

3) 미셸 푸코, 이규현 역, 『성의 역사 -삶의 의지-』(나남출판, 1990), p.3.

치학의 조합은 남성성을 강조하는 파시즘 이데올로기의 한 양식이라 할 수 있다. 즉, 파시즘 이데올로기와 젠더, 섹슈얼리티는 긴밀한 관련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계는 파시즘체제가 보다 강화된 일제 말기의 텍스트에 직접적으로 드러난다. 특히, 순수문학을 표방하던 구세대 작가들과 달리 에로티시즘을 소설의 창작방법으로 삼으며 신세대 작가로 등장했던 정비석은 “현실 앞에 엄숙하자”⁴⁾고 주장하며 친일행위에 동조하는 문학을 창작하여, 파시즘과 섹슈얼리티의 관련성을 보여준다. 따라서 본고는 일제말기 정비석의 소설들을 대상으로 하여, 신체의 부분에 대한 재현의 강조 의미를 파악해보고자 한다. 대상 텍스트는 「금단의 유역」(1939), 「삼대」(1940), 「청춘의 윤리」(1942)로 삼는다. 본고는 이들 대상 텍스트를 통해 신체의 부분으로 등장하는 ‘눈’의 시각성과 남성성의 재현 양상을 밝히며 대상화된 여성들에게 남성의 시선이 받아들여지는 방식을 살필 것이다. 이때 파시즘 이데올로기가 형식으로 사용하는 섹슈얼리티가 갖는 함의를 규명해 낼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부분으로서의 신체에 집중해 본다. 부분 속의 신체는 항상 파편화된 신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파편화의 사회적이고 심리적인 조건은 신체 분할하기의 실천 속에서 코드화 된다. 집합적으로 구성된 가운데 부분들로 존재하는 신체는 개별화된 기관의 다양성에 의해 구성된다. 신체의 개별적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 위에 각인되어 있는 문화적 의미들은 매우 다르게 다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부분은 하나의 주체이다. 왜냐하면, 역사적이고 과학적인 텍스트에서 신체의 부분은 시각적이며 텍스트적 공간의 범위에서 정교화 되고 점차적으로 유표화 되곤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행위향으로서 기능하며, 주체성의 기여에 의해 상상할

4) 정비석, 「현실 앞에 엄숙하자」, 『인문평론』(1940.3), p.43.

수 있는 의미의 단위로서 주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⁵⁾ 신체 부분의 존재론적 상태는 성적 충동의 대상, 문화와 상징화의 매개, 감각적 경험의 도구로서 주체와 객체의 가운데 존재하는 것으로 반복해 드러난다.

엘리자베스 그로츠에 따르면, “어떤 부위는 몸의 다른 부위보다 확실히 훨씬 더 많은 리비도 투자가 있다. 리비도가 어느 부위에 투자되고 그들 부위를 생동하게 만드는 투자의 형태가 무엇인지는 주체의 정신적이고 인간상호간의 관계와 사회-역사적 관계에 달려있다.”⁶⁾ 이처럼 신체적 부분들은 개별화된 기능과 위치를 가지고 있으며, 전체로서의 신체에 차별화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체의 부분들은 의미가 투자되고 분명히 집중된 자리들이 될 수 있다. 신체의 일부분인 ‘눈’이 가지고 있는 함의는 본고의 연구 주제에 중요하다. “시각의 기능은 전반적으로 다른 감각들에게 위계질서를 부여하고 여타 감각들을 통합하며 길들이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시각은 일정한 거리를 갖고서 기능한다. 말하자면 시각은 보는 자와 보이는 것, 물리적인 것과 심리적인 것 사이에 공간이나 장을 설정한다.”⁷⁾ 이처럼 시각은 철저히 관계 지향적이다. 그것은 대상화되는 타자에 관한 지식애와 권력, 욕망의 생산을 통해 리비도의 투자와 흐름을 보여 줄 수 있는 신체의 일부분이 되기 때문이다. 이를 토대로 본고의 논의 전개는 시각의 정치학을 형성하는 매개물인 ‘눈’이라는 신체의 일부분이 소설 텍스트 상에서 어떠한 비유를 통해 의미 작용을 하게 되는가를 살피는 방향으로 진행해 나아갈 것이다.

5) David Hillman & Carla Mazzio, *The Body in parts - Fantasies of Corporeality in early modern Europe* -, Routledge, 1997, p.xii.

6) 엘리자베스 그로츠, 임옥희, 『뢰비우스 띠로서 몸』(여이연, 2001), p.183.

7) 엘리자베스 그로츠, 앞의 책, p.210.

II. 시각의 정치학과 남성성의 심미화 양상

1. 성적 에너지의 전달통로와 고결함의 수사: 「금단의 유역」

정비석의 「금단의 유역」(『조광』 제5권 7호~제5권 12호, 1939.)은 인물의 세계 지각이 '눈'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성적 욕망의 권력관계가 형성되는 소통구조에도 '눈'이 중요한 매개가 되고 있다. 보는 것과 보여지는 것, 관찰하는 것과 관찰당하는 것은 시선을 매개로 하여 주체와 타자의 관계지움을 드러내는 방식이다. 이 텍스트에서 누군가의 '눈'이 누군가를 바라보고 있거나 바라봐지는데는 인물 신체의 한 부분인 '눈'에 리비도를 집중 부사하는 것으로 새턴된다.

이 작품의 사건 발단은 양화계의 선구자이자 고전파(古典派)의 거장인 노 화백이 칠십의 고령으로 십 년만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데서 비롯된다. 그가 그린 「懷古의 女子」란 제목의 나체화는 자신이 열렬히 사랑했던 아내의 모습을 그린 것이다. 그런데 우연히 노화백은 그림 속의 인상이 죽은 아내가 아닌 모델 순경이라는 것을 발견한다. 순경은 “눈동자가 유별히 어름같이 찬 인상”을 주는 여자이다.

모델대 위에서 자기 눈을 화살처럼 쏘고있던 순경의 시선을 그는 아직도 그대로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감정을 말끔이 뽑아버리고 혼백만 남은 그는! 도무지 침범할 수가 없는 그는이었다. 노화백은 칠십평생을 남의 눈을 보아오는 일로 보내왔건만 아직껏 그렇게 차고 매운 눈을 본 기억은 없었다. 『아름다움-』 그러나 순경의 눈은 현대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고전적인 아름다움이었다. 서양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동양적인 그것이었다. 『그렇다! 동양적인…… 고전적인……』…현실은 언제나 추악하다. 회화의 목적은 그 추악한 현실에서 아름다움을 창조해 내는데 있는 것이다. 그러나 노화백은 순경의 눈을 보자 아무리 추철한 회화라도 순경의 아름다움을 따를 수 없으리라고 느끼었다. 그러므로 그는 순경의 눈을 한번 회화에 그대로 옮겨 놓고 싶은 욕망이 무력무력

숫아올랐다. (p.161)

위의 인용에서 확인되듯, 순경은 고전파의 그림 모델로 적격한 외양을 갖춘 존재이다. 즉, 합리와 절제, 조화와 균형을 정신사적으로 중요시하여 왔던 고전파의 예술적 정신을 순경의 몸이 구현하고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 순경의 외적 묘사에서 주의 깊게 봐야 할 점은 ‘차다’라는 축약적 이미지이다. 일제말기에 등장하는 여성 인물들의 최고미는 ‘냉한 것’으로 표현되곤 한다. 순결함과 고결함을 함축하고 있는 ‘차다’라는 서술어는 순경의 인격을 드러내고 있기까지 한 것이다. 이 ‘고결함’은 동/서의 이분법을 통해 구성된다. ‘서양적인’ 것과 ‘동양적인’ 것의 대별 방식을 취하며 순경의 눈이 가진 미를 ‘동양적인’ 것으로 규정하는 가운데는 ‘대동아공영권주의’를 표방했던 일본제국주의의 관념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일제 말기는 신체제에 직면해서 ‘동양담론’과 ‘고전’, ‘자연’으로의 회귀 같은 전통담론이 팽배하며 동양을 세계의 지표로 바라보는 시각을 가졌다. 순경의 눈이 가진 미는 바로 이런 이데올로기와 통하고 있는 것이다.

순경의 눈은 無性的인 성격을 띤다. “그 시선 그것은 너무나 초인간적인 인종(忍從)”을 상징하며, “고락과 핍박에 시달리면서도 죽임으로써 절개”를 지키는 “순교자”를 연상하게 하는 성화된 신체의 일부분이다. 이러한 순경의 차가운 몸이 젊은 화가인 승조에게는 “힘의 상징”이며 “관능적 아름다움”이 아니라 “생명의 아름다움”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재현은 無性的인 육체의 아름다움을 민족주의의 고결함과 연결하며 일제말기 미의 전형을 창조하는 것이다. 이 작품에서 여성인물은 “청초한 순경”과 “인공으로 만든 조화(造花)처럼 힘의 표현이 연약한” 영옥으로 대비된다. 인간 신체의 미적 기준을 어디에 두는가의 문제는 인공성과 순수성을 중요한 미적 기준으로 삼게 되며, 여기에는 고결함의 개입 여부가 반영되어 있을 수 있다. 순경-승조-영옥의 삼각관계에서 순경과 영옥이란 두 여성의 대비되

는 방식은 자연성과 인공성, 그리고 힘의 유무에 의해 이루어진다.

자연적이고 청초하며 동양적인 미와 힘을 상징하는 순경은 삼년 전에 남편을 잃고, 문득 들리는 종소리에 천주당으로 달려가 입교를 한 후 신앙에 몸을 바친 “아주 기특한 여자”로 평가된다. 훼손된 여자와 순결한 여자를 받아들이는 방식에서 남성 이데올로기의 차별화 방식을 발견할 수 있다. ‘훼손’은 착취당함과 타락의 징표이다. 그에 비해 순결한 여성은 남성의 질서를 헤칠 위험성이 없다. 따라서 그런 여자에 대한 윤리적 평가는 긍정적인 것으로 가치평가 된다. “어름처럼 찬 순경. 감정을 초월한, 성모같이 거룩한 순경. 그러면서도 종소리에 감격되어 비를 무릅쓰고 성당으로 달려 갔다는 감격의 천사 순경. 순경은 확실히 고전파 화가에게는 마침의 모델이었다. 그들 모델로 한다면 선생은 말할 것도 없고, 승소 사신도 한거름 새로운 경지로 진전할 자신이 있었다”(p.165)라는 승조의 의식에서도 확인되는 바처럼, 순경의 고결함을 지켜내는 일은 남성들에게 오히려 더 발전적인 단계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노화백 역시 “쌈처럼 맑고 정끼있는 순경의 눈”을 보자 갑자기 “새로운 창조의 정열”이 솟아오른다. 여성의 정조는 위기의 남성에게 강박적인 불안과 갈등의 원인이다. 여성의 정조에 대한 답론은 남성이 정체성을 구축할 뿐 아니라, 여성의 속박을 생산하고 지속시키는 것을 가능하게도 한다. 따라서 ‘아주 기특한 여자’라는 정체성의 구성은 승조와 노화백이라는 남성들의 언표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더 나아가 이런 순경의 아름다움은 같은 동성인 영옥에게서도 언표화된다. 비록 애정의 라이벌이라 할지라도 “내가 사내라두 반하고야 말” 순경을 인정하며 영옥 자신을 “즘생의 낫짝”으로 비하해 나가는 방식에는 남성화된 시선이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남성화된 시선은 권력을 갖는다. 그래서 노화백의 시선은 “총부리를 견주듯이” 공격적인 것으로 순경에게 받아들여진다. “눈은 사람의 혼이요 닛”인 관계로 순경을 압도하는 노화백의 강렬한 시선은 “고민과 오

노에 타오르는” 눈이자 “새것을 창조하는 화가의 고심”을 드러내는 창조적인 정열의 눈으로 비친다. 시선을 통한 서로 간의 교류는 육체적인 소모의 피로감을 두 사람 모두에게 가져다준다. 응시의 대상과 시선의 생산자로서 ‘눈’의 이중적인 역할은 권력의 전이 관계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이 작품에서는 침투적인 남성성으로서의 눈과 수용적이며 수용적인 여성성으로서 눈이 배치되어 있는 것이다. 노화백의 공격적이며 야수적인 성적 에너지가 투사되는 눈의 권력은 남성적인 응시와 눈이 연관되도록 재현되고 있는 것이다.

시선만으로도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다는 환상은 제국주의자의 기하학성과 관계한다. 노화백은 “모든 물체의 형체와 자세를 한오리 한오리 눈의 혀 관찰”하고, “전체와 부분과의 유기적인 관련, 부분과 전체와의 공간적인 균형 이런 것을 치밀히 구상”(p.176)한다. “측정하고 둘러싸고 묘사하는 것, 그것은 영토 지배의 도구이며 시선이라는 특별한 도구의 기능이다.”⁸⁾ 제작자이자 창조자로서의 예술가의 시선은 권력가의 시선이다. 따라서 모델의 형체와 자세를 확고히 포착하여 그것을 입체적으로 살려내는 기술은 남성 인물인 두 화가에게만 부여된 기능이다. 그들이 창조자로서의 정열과 열정에 불타는 제작 시간 동안은 일반 세속인의 범주에서 초월해 있는 특권이 부여되어 있기도 하다. 그래서 “노화백과 승조는 제작중에는 자기를 잊어버리고 그림속 분위기에 잠겨” 있을 수 있다. 이처럼 기하학의 중요성은 위에서 검토한 시선의 중요성과 병행한다. 모든 시선에는 시각영역 안에서 구체적으로 인식 가능한 타자가 존재하며, 대상을 거리화하며 그 ‘거리’를 지배하게 한다. 따라서 고결함과 시각은 순경이 그림의 대상이 되는 순간부터 남성이 여성에게 발휘하는 지배력의 상징이 된다. 그래서 노화백이 기하학의 제도자적 입장에서 창조적 정열로 자신의 에너지를 소진할 때

8) 자크 레에나르트, 허경은 역, 『소설의 정치적 읽기』(한길사, 1995), p.70.

는 에로틱한 관능이 출현하지 않는다.

창조적 정열에로의 소진에 의해 노화백은 눈에 띄게 건강에 축이 나기 시작한다. 이처럼 순경을 모델로 그려 가는 동안 노화백의 건강과 몸이 더욱 쇠진해 간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창조적 정열로 불타는 제작 기간 외의 시간에 노화백은 순경의 육체를 탐하려는 충동에 사로잡힌다. 그는 꿈을 통해 무의식적으로 순경을 안거나 욕구를 이기지 못해 순경을 그린 그림에 달려들거나 하는 자신의 심리에 대해 윤리적으로 갈등하고 있다. 그가 순경을 그리는 그림의 제목으로 삼은 ‘금단’은 윤리적 규제가 분명히 지정되어 있는 표제이다. 그에 비하여 ‘동경’이라는 승조의 표제는 노화백과는 정반대의 것이다. 이 작품에서 노화백과 승조의 관점 차이는 ‘성격’의 차이가 아니라 ‘나이’의 차이로 재현되고 있다. 노쇠한 노화백의 성적 열정은 스스로 억압된다. 그리하여 “늙은 자기의 마음에 손톱만치라도 그런 객적은 생각이 이리날 것을 스스로 경계하는 의미에서도 금단이라 붙이기로 하였”(p.190)던 것이다. 노화백에게 있어 나이의 문제는 도덕성과도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노화백이 한때 도취되었던 그 열정의 세계는 젊은 시절의 얘기로 이미 과거형이다. “찰란하든 기억의 한토막”과 현재의 노화백과의 거리는 그가 취하고 싶어하는 순경과의 기리를 말하기도 한다. 그는 순경을 윤리적으로나 남성으로서나 소유할 수 없다. 그것은 차가운 이미지의 순경을 취하기에 그는 추위를 감당할 수 없는 노쇠한 몸인 것이다. 그의 사족은 추위에 오그라들기만 할 뿐, 순경을 탐하려하는 성적 환상에서 역시 알 수 없는 추위를 견디어 내지 못한다. 이러한 자신의 정체를 파악할 때 추위는 “뼈에 사무치게 엄습하여 오는 것이다.”(p.132) 노인의 몸은 이제 더 이상 생산성이 없다. 그래서 그의 성은 윤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도 부정되어야 할 대상일 뿐이다. 파시즘 이데올로기에서 성을 다루는 방식 가운데는 생산성이 없는 노인의 성을 부정적으로 그려내기도 한다. 남성성과 생산성의 관계를 윤리적인 차원의 문제로까지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노화백이 '이지'와 순경에 대한 '연모의 정열' 사이에서 피투성이가 될 정도로 심하게 갈등하는 동안 순경은 노화백의 시선에 압도당한다. 순경이 노화백의 시선을 창조적 정열에서 연모의 정열로 이해하게 되는 순간은 그녀가 일종의 정절 시련에 빠지게 되는 순간이다. 순경의 정절을 시험하며 그녀의 무의식을 유혹하는 노화백의 시선은 승조에 의해 깨어진다. 이때 승조는 분명 노화백과 대척되는 지점에서 순경의 '흥악한 꿈'을 깨워 고결한 '눈'을 보호하는 인물이다. 여성의 성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구속되고 억압되어 노출되는지 정절 시련 같은 표현 방식으로 살펴 볼 수 있다. 순경은 이러한 일시적 유혹의 상황을 자신의 탓으로 돌린다. 그것은 승조나 노화백 같이 예술에 생명을 바치는 순교자적 인물들의 심리를 자신이 어지럽혔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이브의 죄'라 자기 스스로 말하며, 순경은 수녀가 되는 것으로 결론이 마무리된다. 여기에서 여성 인물에게 부여된 고결함은 남성 인물들의 창조적 예술가의 고결함을 위한 것으로 읽힌다. 그리고 긍정적으로 평가된 여성성의 의미란 남성성을 지켜주는 여성성이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일제 말기 전시동원체제 아래에서 남성이나 여성의 섹슈얼리티는 통제되어야 할 대상이 된다. 파시스트들의 섹슈얼리티 통제 방식의 일차적 방법은 성적 에너지를 승화시키는 방안을 탐구하는 것이었던 것이다. 이 작품의 경우, 승화의 과정은 '고결함'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2. '군중심리'의 전달통로와 '정복'의 수사: 「삼대」

정비석의 「삼대」는 1940년대 『인문평론』誌에 실린 단편인데, 파시즘이 대을로기 선전에 있어 대중매체의 영향력이 지배적임을 잘 보여주고 있다. 주인공 형세가 애인 미래와 영화관에 들어가 보게 된 '뉴-쓰영화'의 이미

지는 이 작품 전체적으로 형세의 상념을 장악하고 있다. 전쟁의 상황과 병사들의 치열한 싸움을 보여주는 영화 장면은 형세의 일상 생활에서 연상적으로 재등장하며 그의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 이 작품에서 '스크린'은 가공적인 '의사(擬似)-눈'으로서, 일방향적인 관념의 전달만을 보이는 시각물이자 '제국의 눈'으로 비유된다. 대중조작을 목적으로 파시즘 권력자들은 정책 수행을 위해 사회 심리적 동기를 유발시킬 수 있는 매체를 사용해왔다. 총동원을 목표로 사용된 라디오와 영화 같은 대중매체는 정치를 심미화시키는 전략의 중요한 수단이 된 것이다. 발터 벤야민이 시사한 것처럼, "파시즘은 축제나 대규모 군중집회, 전쟁 같은 스펙터클을 이용해 현대 대중의 욕망에 호소한다."⁹⁾ 이러한 파시즘 문화는 집단을 하나의 감정으로 묶어 내는 이데올로기와 결합해 정치적 선동의 도구가 될 수 있다.

텍스트에 등장하는 극장은 일상 생활 공간에 자리하면서도 이질적인 공간으로서 전쟁의 장관을 재현해 놓은 현실 속 이(異)공간이다. 따라서 극장은 주인공 형세가 후방에 있으면서도 전쟁을 목격할 수 있도록 만든다. 이때 영화는 대상에 대한 다양한 시점의 제공을 배제한 채 단일한 이데올로기를 주입하면서도, 그 영화 관람자 스스로가 이미지 제작의 주체인양 인식하도록 한다. "이같은 영화관람의 주체와 색체의 오인상태는 라캉의 주체 형성이론에서 유아가 거울에 비친 영상과 자신을 동일화함으로써 타자성을 배제한 채, 자신의 신체를 통일된 전체로 인식하는 오인의 과정과 유사하다고 하겠다."¹⁰⁾ 이러한 피동적 수용 과정은 작중인물의 '눈'에 영화가 권력을 부여하면서 '군중심리'를 자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스크린은 눈알을 뽑을 듯이 분주히 어지러워지면서 오직 파괴의 운동을

9) Simonetta Falasca-Zamponi, *Fascist Spectacle*, California UP, 1997, p.7.

10) 박은정, 「토머스 핀천의 「바인랜드」: 대중매체의 이데올로기와 파시즘」, 『영어영문학』 제43권 2호(1997), pp.331.

찰란하게 계속할뿐이었다……형세는 완전히 정신을 뺏히운채 용맹과감한 스크린의 전향에 취해있었다. 스크린을 휩쓰는 영웅적인 힘은 형세의 피를 지글지글 끓여오르게 하였다.

영웅시대 - 그러나 시-자, 아렉산다-, 나포레옹이 개인적으로 시대를 지배했던 것처럼 현대는 **군중적인 힘**에 지배되고 있는 것이다. 군중적인 영웅시대! 감정을 가진 사람을 보람있게 생각하였다. 역사는 항상 상반되는 두 개의 **군중심리**의 교류로서 진행되는 것이 아닐까. 후세의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군중심리에 휩쓸렸던 옛사람들을 비웃을는지 모르나, 그러나 비웃는 그 자신들이 다른방법으로서의 군중심리에 지배되지 않는다고 누가 보증할수 있을까!
(pp.159~160)

위의 인용문에서, 대중의 선동성을 가장 직접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영화의 스크린은 단순히 하나의 공간적인 면으로 지각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뺏을 듯이” 공격적으로 “파괴의 운동을 찰란하게” 보여주는 행위의 주체로 그려진다. 형세는 이 스크린이라는 선동자에게 전염되는 피주체가 되어 메시지를 수용하는 수용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매개체로서의 스크린은 군중심리를 조장하는 영웅을 만날 수 있게도 한다. 게다가 극장에서 마주쳤던 형 경세가 뉴쓰영화를 본 이후로 사라졌다는 것은 그것이 자살이든 전쟁에의 적극적 참여이든 간에, 어떤 행위로든 **반응**을 가져왔다는데 의미가 있다. 파시스트들은 “현대는 군중의 시대”라는 르 봉의 통찰을 받아들였으며, 군중의 심리에 침투하고 그것을 조작하는 데 필요한 방법을 시사받았다.¹¹⁾ 이러한 가운데 파시스트 문화의 파토스는 이데올로기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대중의 ‘감정’을 자극하게 된다.

형세는 “정복의 아름다움에 정신을 송두리째 뺏히며 보고 있는 동안에” “숨을 헐떡이며 주먹에 땀을 부러쥐”(p.146)기도 한다. ‘정복’을 아름다움으로 미화하는 것은 전쟁을 심미화하는 방식이다. 게다가 적군을 소탕한

11) 김철, 신형기 외, 『문학 속의 파시즘』(삼인, 2001), pp.102~106 참조.

뒤 상상봉에 꽂은 기가 '일장기'라는 것은 전쟁이 일본의 전쟁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그런데 일본의 전쟁과 그 전쟁의 광경을 바라보는 형세와는 거리가 없다. 일본의 전쟁이 곧 형세의 전쟁이기 때문에, 정복 역시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이며, 형세의 '눈'에는 전쟁의 장면만이 잔상으로 남아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효과는 형세의 사지에 영향을 주기까지 한다. 루이 알튀세(Louis Althusser)의 이데올로기 이론에서 교육이 주요한 이데올로기적 국가 장치이듯이, 현대 사회에는 대중매체가 그 역할을 하는 셈이다.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인 전쟁 뉴쓰-영화는 개인을 주체로서 호명하기 때문에 '이데올로기적 환상'을 주체에게 부여한다. 영화를 본 뒤, 영화의 주제가 담고 있는 행동을 모방하는 것은 인물의 성적 욕망에도 자극적인 반응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정복의 아름다움'이 인물들 간의 성적 관계에서도 그래도 재현된다. 주의해서 봐야 할 것은 형세가 '정복의 아름다움'에 심취되어 있는 동안, 그의 연인인 미래는 '피정복자의 입장'에 심취되어 있다는 것이다. 두 사람이 느낀 "정복, 피정복의 쾌감"은 그대로 미래의 '눈'에서 "고혹적인 광채"를 느끼게 하고, 그것이 그대로 그들의 성행위로 이어진다. 여성인물인 미래에게 "정복되는 편"의 쾌감은 스스로 부여된 것이며, 세국주의적 정복의 대상화를 자발적으로 수락하고 있는 것이다.

형세가 인상깊고 아름답게 바라본 '전향뉴-쓰'의 장면들은 "절박한 현실의 상징"을 찾아볼 수 있는 무대였던 것이다. 그런데, 이때의 현실은 전쟁을 치루는 일본 제국의 현실이 아니라, 피식민지인 조선의 절박한 현실이다. 그래서 형세는 형인 경세같이 전향 이후 무기력증에 빠져 현실과 괴리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현실'을 파악하고 변화시킬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형세가 파악한 '현실'이란 이기는 것만이 '선'인 것이다. "운명의 패쪽의 표리에는 승과 패의 두 가지밖에 없다." 이러한 현실의 논리를 받아들인 형세에게 전쟁의 야만성은 더 이상 야만적인 행동으로 보이지 않

는다. 이기기 위해서는 수단을 가리지 않는다는 형세의 우수 논리에는 더 이상 선/악의 판단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같이 피식민지 지식인의 존재가치를 부인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겨야 한다는 논리에는 생철학이자 실존철학적인 관념이 반영되어 있다. 생철학의 비합리성이 파시즘의 이데올로기와 결합해서 전체주의의 논리를 옹호했던 역사적인 판례를 볼 때, 이 당시의 생철학적 경향이 파시즘의 철학으로 흐를 위험성을 다분히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형세와 미레라는 두 인물의 정복·피정복감을 실현하던 불륜 관계는 그들이 '병사'로 비유되면서 정복의 아름다움을 확대시켜 나가게 된다. 즉 이들을 만주행으로 가게 하는 작품의 결말은 피식민지 인물이 영화의 정복 행위를 모방해서 제국의 대사업이라는 현실의 실천 행위로 투신케 하는 것이다.

일제 말기 피식민지 지식인 남성들의 무력감은 파시스트적 정복의 힘을 열망하며 제국주의적 팽창주의를 실현하는 주체가 되도록 한다. 소렐(Georges Sorel)은 대중의 비합리적 산물들인 감정, 본능, 의욕 등을 사회 변혁에까지 가장 효과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방법으로서 '사회적 신화'라는 개념을 제시한다. 그는 "미래를 지향하는 대중의 의욕의 표현"인 '신화'는 "신질서의 창조"와 "변혁을 위하여 一路 突進하려는 모처럼인 대중의 突進力"¹²⁾을 창조하는 매개로 이해하고 있다. 이처럼 파시스트 문화는 사회적 신화를 미래상에 근간해서 대중을 결집시키는 힘으로 상정하고 있다.

3. '정열'의 전달통로와 '희생정신'의 수사: 「청춘의 윤리」

정비석의 「청춘의 윤리」(1942)에서는 '정열'이 한 개인과 민족의 정체성 구축에 필수적인 요소로 상찬되며 심미화된다. 따라서 등장인물들은 '열정'

12) 박치우, 「동아협동체론의 一省察」, 『인문평론』(1940.7), p.19.

만큼이나 ‘정열’이라는 단어들을 남발하고 있다. “정열과 걱정은 자신의 대상을 향하여 정열적으로 노력을 기울이는 인간의 본질적 힘이다”¹³⁾라는 마르크스의 말은 결국 ‘정열’이 관계지향적이고, 자신의 고뇌를 감수하려는 의지임을 주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열은 희생정신을 수반해야한다는 의미에서 고통을 받아들이는 인간의 노력이라 할 수 있다. ‘정열’은 열정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것과는 달리 의지와 의욕을 통한 노력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 작품에서는 이러한 ‘정열’이 ‘눈’이라는 매개를 통해 전달되는 것으로 비유되면서, 젠더의 권력 구조를 반영하고 있다.

작품에서 등장인물의 시선 有無는 권력의 유무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 권력의 유무는 ‘정열’이라는 감정의 유무와 직결되어 있다. 주인공 장현주는 주성호에게 이끌리는 감정이 성애원을 맡아 운영하는 자신에게 있어 사적인 감정이라 생각한다. 개인적 감정의 차원은 사업이라는 공적 차원을 침범하는 요소로 취급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야기가 전개되는 내내 장현주는 감정의 영역에서 벗어나 있지 못하다. 텍스트에서 장현주의 시선은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녀는 그저 타인의 시선에 압도되는 인물형으로 제시될 뿐이다. 감정에 이끌리고 있으면서도 강하게 억압하고, 계속 공적 사업의 이행민을 강조하는 현주에게 최영득과 주성호라는 남성 인물들이 감정의 중요성을 각성시켜주는 일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지점이다. 아래의 인용문은 ‘정열’과 남성 인물의 ‘시선’을 결합시켜 재현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렇습니다. 감정은 정열의 샘터라구 할까요. 과거의 위대한 문호들의 문학에 대한 정열이라는 것도 이면을 잘 살펴보면 그런 정열을 솟게 한 숨은 원천이 반드시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불을 토하듯 말하며 영득은 고정된 시선으로 현주의 눈동자를 쏘아보았다. 그 시선과 마주치자 현주는 가슴이

13) 가라타니 고진, 김경원 역, 『마르크스 그 가능성의 중심』(이산, 1999), p.105.

짙었었다. 철석이라도 꿰뚫을 듯이 열정적인 그 시선을 전신에 느끼자 현주는 영득의 눈알 속으로 휩쓸려 들어가는 듯한 자신을 감각하였다.(p.141)

「청춘의 윤리」에 등장하는 최영득은 남성성의 심미화를 가장 전형화한 인물이다. 텍스트 전반에 걸쳐 정열적인 남성으로 그려지고 있는 그는 “서부활극에 나오는 왜남아 같은 인상”을 지녔다. 그는 정열만 있으면 불가능한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위의 인용문은 일에 대한 정열은 감정과 무관한 것이 아니며, 오히려 “감정은 정열의 샘터”라 주장하는 영득에게 현주가 동화되는 것을 보여준다. 열변을 토하는 영득의 시선에 현주의 눈동자가 반응을 보이며 맥을 못 추고 그녀가 “영득의 눈알 속으로 휩쓸려 들어가는 듯한 자신을 감각”한다는 것은 파시즘 이데올로기에서 말하는 활력과 에너지를 느낄 수 있게 할뿐만 아니라 정서적 자극과 감염, 감화의 구조를 찾아낼 수 있다. 이처럼 최영득이라는 인물은 “무슨 기정된 코스를 다음에서 다음으로 과감하게 실천해 나가는 듯이” 보이는 파시스트의 면모를 지녔다.

과도하게 정열적인 그는 “여자란 남자의 조종술에 따라 아무렇게라도 할 수 있는 동물”이라고 생각한다. 게다가 그는 ‘여필종부’라는 전통적인 관념을 지니고 있으며, 사랑 없이도 결혼은 가능하다고 보는 인물이다. 따라서 사랑 없이는 결혼할 수 없다는 현대 여성들의 관념은 그에게 청산해야 할 ‘외국사상’에 지나지 않는다. ‘연애를 무시한 결혼’의 합리성을 주장하며, 결혼을 일종의 투기라고 생각하는 그는 ‘연애나 결혼을 무슨 물건 흥정하듯이’ 생각한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현주와의 혼사를 결정하고, 그녀는 당연히 이의가 없을 것이라 독단적으로 생각하기까지 한다. 이러한 일방적인 행동에 대해 현주는 모욕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결코 불쾌하게 느끼지 않는다. 오히려 “청춘이라는 힘찬 대명사”가 붙어 영득의 “남성미가 황홀하게”(p.256) 느껴지기까지 한다. 그리고 “영득의 입에서 떨어진 말을 현주

는 거역할 수가 없음을 느낀다”. 현주는 파시즘 미학의 특성인 남성성에 압도당하며, 그에서 오히려 감정적 쾌감을 느끼기까지 하는 것이다. 그래서, 서사 진행 내내 결혼과 사업으로 갈등하던 그녀가 너무나도 쉽게 최영득의 청혼을 승낙하고 마는 것이다.

현주는 영옥을 위해서 이미 성호에 대한 마음을 정리하기로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옥에게로 이끌려 가는 성호의 태도에 몹시 서글픈 감정을 갖는다. 그러면서도 자기를 사모하던 성호가 뜻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것을 알고 깨끗이 단념한 것을 볼 때, 부끄러움을 느끼는 한편, “제가 성호보다 몇 층 아래 계단의 사람임”을 깨닫는다. 현주는 조금도 감정에 구애됨 없이 앞으로 나아갈 줄 아는 남성의 세계에서 “찬란한 아름다움”을 발견한다. 남성성의 심미화는 타자인 여성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살필 수 있다. 이런 남성성의 예찬은 폭력적이고 무례한 행위들 역시도 아름다움으로 수용시키며 여성과 남성의 사이에 계층을 만들어 놓는다.

파시즘 이데올로기에서 남성집단의 자질은 중요하다. 그래서 남성들간의 우정의 강조는 동성애에 대한 우려와 혐오를 낳기도 한 역사적 사실을 찾아볼 수 있다. 최영득은 현주에 대한 주성호의 감정을 알고, 현주에게 청혼하기 전에 주성호의 마음을 알기 위해 찾아간다. 최영득이 현주에게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주성호를 찾은 이유는 ‘우정’ 때문이었다. 현주라는 일개 여자 때문에 남성 간의 우정을 상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 주성호의 생각인 것이다. “연애나 결혼은 어느 여자라도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우정이야 어디 함부루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연애’라는 사적인 감정보다 ‘우정’이 더 중요하다는 논리는 ‘연애’는 여성적이고 ‘우정’은 남성적이라는 등식도 가능하다. 게다가 전체주의적인 사고에 있어, 그 중요도를 따지자면 당연히 후자 쪽이 그 무엇과도 비교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연애’보다 상호 교류와 협력적인 특성을 가진 결합의 강조는 ‘자매애’를 통해서도 나타난다. 주성호를 사랑하는 영옥의 마음을 알고 정리하려하지만

내심 그를 사모하는 마음이 정리되지 않던 현주에게 역시 '연애'보다 중요한 것은 '우정'이다. 현주 역시 성호와의 사랑보다 우정의 회복이 가장 절실한 문제인 것이다. "우정은 아무 것도 바꿀 수 없다"는 논리를 통해 여성들간의 자매애를 민족주의적 고결함 속에 포섭시켜 버리는 방식이 여실히 드러나는 부분이다.

파시즘 문학에서 '전쟁'은 남성성으로 표현된다. 전쟁의 심미화 과정은 주성호의 동생인 성준의 출정과 함께 이루어진다. 출정 때 플룻폼에 배웅을 나간 현주와 성호는 '무연의 교훈'을 얻는다. "〈해전〉이라는 일본 소설에서 스물 여섯 살 먹은 비행장(飛行長)이 적을 정찰하려고 항공모함을 떠날 때에 동료들을 보고, "그럼, 다녀오겠네." 하고 빙그레 웃으며 어디 마을이라도 가는 듯한 그런 유유한 태도를 보여 주더라는 대목을 읽은 기억이 편뜻 머리에 떠올랐다. 이제 떠나면 다시 돌아올 기약조차 막연한 생사의 순간에 있어서도 조금도 두려운 빛이나 초초한 표정을 보이지 아니하는 그 유유한 태도는"(p.160) 성준을 배웅하는 장면에서도 그대로 연출된다. "영웅적인 죽음"에 대한 이러한 예찬은 국가사회주의에 의해서 효과적인 전쟁수행을 위해서 이용되는 영웅적 자기헌신이라는 이데올로기와 동일성을 지닌다. 성호가 동생 성준을 보고 얻은 교훈은 '자기 분위기'가 아닌 남을 위한다든가 국가 민족을 위한다는 생각을 갖는 것이다. 이는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젊은이들의 '희생정신'이자, '고귀한 정신'인 것이다.

'희생정신'은 남성들의 집단인 군대에서 가장 철저하게 보여준다는 점과 이 작품이 결국 연애와 모성에서도 희생정신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전쟁은 죽음을 심미화 하는데, 이는 이런 희생정신의 환상 속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게다가 희생정신은 자기 중심이 아닌 타인과 국가를 더 소중히 여기는 전체주의적 사고 방식, 곧 전체가 제대로 서는 것이 곧 한 개인인 내가 잘 되는 것이라는 전체주의 논리를 주장하기에 아주 효과적인 파시즘 이데올로기의 환상이다. 이에 합치되어 있다는 환상은 곧 내선일체의

환상과 직결되어 있던 것이다. 그래서, 주성호는 전쟁에 대한 경험을 얻어 볼까 하는 마음으로 일선에 있는 야전병원으로 나가기 위해 성애원을 그만둔다. 동생이 출정한 이후로 자신만 편안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에 마음이 거리껴진 성호는 ‘총검을 들구 전장에는 못 나가도 내가 할 수 있는 일루 다소라두 우리 민족에 보람 있는 일이 없을까 하고 생각’하다 담임교수의 부임 얘기를 듣고 가기로 마음먹는다. 그가 성애원을 그만둔다는 것은 현주에 대한 감정이 정리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호는 “지금까지의 생활을 일체 청산하고, 의사로서의 보다 의의 있는 생활, 청춘으로서 보람있는 생활”을 하기 위하여 마침내 군의관이 되어 떠난다.

여성을 전쟁에 동원하는 가장 직접적인 부분은 영옥의 계속되는 구애에도 아랑곳하지 않던 주성호가 영옥에게 보낸 편지에 적힌 결혼 조건이 잘 보여준다. 성호가 가 있는 병원에는 전쟁에 남편을 잃은 미망인들이 간호부로 있지만 태부족이므로 현주가 와서 도와주는 것이 그 조건이다. “요새 젊은 여성들은 전혀 사회 정세를 떠나서 사치만 일삼으려” 한다며 개탄하는 주성호의 편지는 전시체제 아래 여성의 사회적 임무를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따라서 텍스트 내내 현주의 사업이 갖는 의의 역시 지속적으로 강조된다. 주성호가 야전병원에서 일하는 위대함만큼 결혼을 해서 민족을 육성하는 여성의 일 역시 ‘민족의 장래’를 위한 큰 일이 아닐 수 없다는 논리다. 이는 한 국가와 민족의 “인구 증식”을 통해 그 번영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며, 전쟁에서 인력 동원의 중요한 지점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아내나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국가에서 관리하는 것은 ‘가정의 국가화’ 전략으로 전시 종주국인 일본에서 수행되었던 ‘여성의 국민화’ 전략과 다를 바 없다.¹⁴⁾ 인물들의 ‘열정’은 꺼져버리거나 승화되어 국가적 대의와 희생정신에 대한 ‘정열’의 의지를 불태우는 것으로 변화된다.

14) 우에노 치즈코, 이선이 역, 『내셔널리즘과 젠더』(박종철출판사, 1999), pp.63~68.

파시즘 문화에 있어서 '정열'은 행동주의적 인간형의 필수자질이 된다. '정열'을 갖는 인물형은 대개 남성으로 제시되고, 여성의 경우는 반드시 남성 인물의 교육과 지도를 통해 가능해지는 것으로 재현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이 분법의 중심을 '눈'이라는 시각적 재현의 비유를 통해 구도화하고 있음을 살필 수 있다.

Ⅲ. 결론: 모든 여성은 파시스트를 숭배한다?

아래는 「삼대」의 서두에 제시된 잠언록의 내용이다.

- 철학은 과거의 불행, 미래의 불행에서는 용이히 이긴다. 허나, 현재의 불행은 항상 철학에게 이긴다 -
-라·로슈프-코- 「잠언록」

철학적 논리로는 '현재'를 이길 수 없다는 인식 아래에 있는 잠언록의 구절에서부터 시작하는 이 소설은 전쟁과 비상사라는 현실의 지배가 등장 인물들의 사유와 인생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파시즘은 위기의 담론으로 배출된 이데올로기이다. 일제 말기에는 파시즘의 수용과 함께 세계대전 에 관련된 여러 소식들이 전해졌다.¹⁵⁾ 그리고 '대동아 공영권'으로 아시아를 포섭하려는 일본 제국주의는 식민지인 조선을 전쟁동원하기 위해 다양한 선전활동을 펼쳤다. "내선일체는 대동아 공영권이라는 외적 구조를 가지고 있었고, 조선 작가에게 제국주의의 피해자인 피식민지 민족으로서 약

15) 불란서와 프랑스, 영국 등지의 歐洲전쟁의 소용돌이 속 전쟁의 불안을 동요케 하는 담론들은 일제 말기에 폭발적으로 쏟아져 나온다. 이들은 구주의 전쟁 소개라는 명목 아래 파시스트들의 사진을 공공연히 제시해 가며, 전쟁의 심각성과 히틀러 등 파시스트에 대한 영웅성을 언급한다.(文章郁, 「파란을 싸고도는 열국의 동향」, 『조광』 5권 7호(1939.7) 참조)

자적 자기동일성 대신 오히려 아시아 해방자이자 제국주의를 초극하는 사랑의 강자라는 가짜 주체성을 가지게 하는 것이다.”¹⁶⁾ 억압과 차별화의 식민지 정책을 펼쳤던 일제는, 전쟁이 지속되고 확대되면서 징병령을 핵심으로 하는 동원을 목적으로 적극적인 동화정책을 펼쳤다. 이러한 아우라는 일제 말기 피식민지인을 불안과 열망 속에 묶어 놓는다. 게다가, 카프의 강제 해산 이후 사회주의 탄압과 경제적 공황으로 인한 피식민지 지식인들의 절망감은 ‘대동아전쟁’의 사회적 신화를 통한 현실 극복 의지를 갖도록 만들 수 있었다. 남성들의 불안과 위기의 대용물로 여성을 동원하는 방식은 엄격한 젠더의 구조를 구성하는 가운데 이루어진다. 특히나, 식민지 경험을 통한 피식민지 남성의 매저키즘적 충동은 자신보다 하위 계층으로 상정된 피식민지 여성에게 발현된다.

앞의 작품 분석에서 파시즘 이데올로기와 결합하는 젠더, 섹슈얼리티는 신체의 부분, 특히 ‘눈’에 리비도가 집중되면서 이데올로기 구성의 매개가 되었다. 이는 일반적으로 파시스트 미학에서 나타나는 유기체적 신체 재현과 달리 리비도가 집중된 신체의 한 부분을 주체화함으로써, 부분의 자발적 운동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 부분의 주체성에는 철저히 권력구조인 남성성이 반영되고 있다. 『금난의 유역』, 『삼대』, 『청춘의 윤리』에서 ‘눈’이라는 시각체는 ‘고결함’과 ‘균중심리’, ‘희생정신’을 강조한다. 이는 균중의 정신성에 해당하는 차원이다.

비합리주의를 통해 자신들의 이념을 합리화하려는 파시즘에 있어 ‘정치의 미학화’는 전쟁이나 집회 같은 집단적인 정치 프로그램을 통해 개체의 비판의식을 마비시키고 국가의 획일적인 통합에 복속되도록 조장한다. 일제말기에 팽배한 열정과 사랑과 성 등은 대중적인 감정을 목표로 한 파시즘 문학의 일대 기획이라 할 수 있다. 열정과 사랑이라는 감정의 일체감과

16) 이경훈, 『이광수의 친일문학연구』(태학사, 1998), pp.166~167. 참조.

‘내선일체’의 동조에 대한 환상은 개개의 이성보다는 전체주의라는 집단의 감성적 이성을 통해 이중성을 내보이고 있었던 것이다. 내선일체의 환상 속에 전쟁을 심미화하는 파시즘의 미학화 전략은 사랑이나 열정같은 심리적 파토스를 통해 에너지를 얻고, 폭력을 아무런 장애 없이 정당화시키는 논리가 성립된다. 소설 속 인물들의 열정이 비도덕적이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이들의 열정이 타자나 공동체를 향한 것이기 때문이다.

정비석의 소설에서 남성성의 심미화는 타자인 여성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폭력적인 것 역시도 아름다움으로 수용시키는 남성주의적 시각으로 그려내고 있다. 이때, 여성들은 강력한 파시스트를 열망하는 존재로 그려지며, 남성의 시선이 지닌 권력을 수용하는 그녀들은 남성성을 보호하는 타자로 존재해야 한다. 그래서 진정한 여성성은 존재하지 않고, 오로지 여성성을 가장한 남성성만 존재하는 소설적 재현이 이루어진다. 제국주의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피식민지 남성 역시 여성화된다. 이처럼 여성화된 피식민지 남성성의 불안은 피식민지 여성에게 투사되고 있던 것이다. 불안해진 젠더의 위계는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하여 정복-피정복의 사도-매저기즘적 재현을 수반한다. 이 재현에서 문제적인 것은 여성이 폭력적 남성성마저도 매혹의 눈길로 바라보는 존재라는 남성에 의한 해석으로 여성성이 규정되고 있다는 점이다.

□ 참고문헌

- 김철·신형기, 『문학 속의 파시즘』(삼인, 2001), pp.1~386.
 이경훈, 『이광수의 친일문학연구』(태학사, 1998), pp.1~402.
 가라타니 고진, 김경원 역, 『마르크스 그 가능성의 중심』(이산, 1999), pp.1~264.
 미셸 푸코, 이규현 역, 『성의 역사: 얇은 의지』(나남, 1990), pp.1~186.
 엘리자베스 그로츠, 임옥희 역, 『뫼비우스 띠로서의 몸』(여이연, 2001), pp.1~470.

우에노 치즈코, 이선이 역, 『내셔널리즘과 젠더』(박종철출판사, 1999), pp.1~ 280.

자크 레에나르트, 허경은 역, 『소설의 정치적 읽기』(한길사, 1995), pp.1~286.

제프리 워스, 서동진·채규형 역, 『섹슈얼리티: 성의 정치』(현실문화연구, 1994), pp.1~190.

피터 브룩스, 이봉지·한애경 역, 『육체와 예술』(문학과 지성사, 2000), pp.1~532.

David Hillman & Carla Mazzio, *The Body in parts - Fantasies of Corporeality in early modern Europe* -(Routledge, 1997), pp.xi~329.

Simonetta Falasca-Zamponi, *Fascist Spectacle*(California UP, 1997), pp.1~194.

박은정, 「토머스 핀천의 「바인랜드」: 대중매체의 이데올로기와 파시즘」, 『영어영문학』 43권 2호(1997), pp.330~352.

Abstract

Rhetoric of Body and Aesthetic of Masculinity

- Centering on Jeong, Bi-Seok's Novel in the latter Japanese Imperialism -

Han, Min-Ju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reveal a Pattern of Dominate of Masculinity and the Political Unconscious through representation as Rhetoric of Body. Sexuality have been controled Fascism Ideology. Fascism Ideology is connect with sexuality and gender. Therefor, this thesis focuses on examining over a debate about fascism during the latter Japanese Imperialism and next try to study the relation of Ideology and Jeong, Bi-Seok's works.

Jeong, Bi-Seok's early work has brought out healthy eroticism based on primitive lyricism. Generally, our Pure Literature was criticized to be excluded and written about folkloric fusion with nature only to seek after beauty which is essential to art rather than protest against Japan's colonial oppression as a whole. Jeong Bi-Seok not only strengthened but also cracked the patrical ideology by way of his early medium and long length novels <The Prohibition Vally>(1939), <The three generations>(1940), and <The Morality of Youth>(1942). Eroticisim presented in Jeong Bi-Seok's works were also suggested Male Fantasia. This thesis is to reveal these facts as focus on the parts of Body. Specially, this thesis focus on representation of eye. Because, the part of body have a subjectivity as a libido of concentration. The eye in Jeong Bi-Seok's works was becamed an avenue of communication of 'desire', 'crowd psychology', and 'passion'.

key words : body, fascism, masculinity, sexuality, eye, visual

■ 본 논문은 9월 30일 투고되어 10월 20일에 심사가 완료되었으며 11월 10일 게재가 확정되었음.

